

7·8월의 해충(VIII)

—포플러하늘소(황철나무알락하늘소)—

변 병 호/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이해충은 포플러류의 작은 가지를 식해하는 곤충으로 현사시나무를 특히 좋아한다. 근래 현사시나무 조림 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이 해충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피해가 심한 곳은 강원도 원주 황성지역이며 이 곳을 중심으로 서울 제천지역으로 피해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분포;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소련

가해수종; 현사시나무 은백양 나무 황철나무 포플러류.

가해상태; 부화한 어린유충은 직경 2.5cm 이하되는 줄기 및 가지의 수피밑 형성층 부위를 1cm²정도 식해하다가 목질부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다. 형성층에 받은 상처 상단에 캘러스(callus)가 생겨 흑모양으로 수피가 불룩 나온다. 상처 부위는 부패되어 목질이 연약해져 바람에 부러지고 상단부의 가지가 말라죽는다. 죽은 가지는 나무위에



피해를 받아
고사한 가지

오랫동안 붙어있어 경관을 저해시킨다.

형태; 성충의 몸길이는 11~14mm이고 몸색은 흑색바탕에 황금색 털이 있다. 암컷의 날개에는 황금색 반점이 4~5쌍씩 있으나 수컷에는 반점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알은 장난형(長卵形)으로 장경이 2.4mm 단경 0.7mm이고 색깔은 산란 초에는 유백색이고 부화직전에는 황백색이 된다. 유충의 몸길이는 10~15mm이고 머리와 가슴은 갈색이며 몸통은 유백색이다.

생활사; 연 1회 발생하며 성충이 우화하는 시기는 4월하순부터 5월하순 사이이고 우화최성기는 5월하순으로 약 1주일 사이에 80% 이상이 우화한다. 우화한 성충은 약 1주일간 줄기의 수피를 갉아

먹고 살다가 어린 가지의 수피를 말굽 모양으로 물어 뜯고 그속에 알을 1개씩 산란한다. 암컷 1마리가 30개의 알을 낳으며 알기간은 9~16일이다. 부화한 유충은 수피

밑에서 형성층 부위를 식해하다가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 중심부에 4cm길이의 굴(穴道)을 만든다. 굴 끝에 벌레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유충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3월하순부터 5월중순 사이에 번데기가 된다.



포플러하늘소 성충

방제법; 겨울에 전지한 가지는 4월 이전에 모아서 태운다. 약제를 살포할 때는 성충우화 최성기인 5월하순에 싸이스린액제 3,000배 파프유제 1,500배 그로포유제 1,200배액을 1~2회 살포하며 항공방제를 할 때에는 파프유제 40배액을 성충우화최성기에 1~2회 살포한다. 11.



산란흔적



피해지 내의 유충